

원화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1. 환율 변동성의 통화별 영향도	1
2. 원/달러 환율 변동 영향	2
3. 원/엔 환율 변동 영향	4
4. 시사점	6

확인 : 팀 장 이재우 (3779-6685)
jaewoolee@koreaexim.go.kr

작성 : 선임연구원 김윤지 (3779-6677)
yzkim@koreaexim.go.kr

1. 환율 변동성의 통화별 영향도

□ 환율 변동성 확대에 수출 기업 부담 증가

○ 최근 일본·유럽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으로 달러강세·엔화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환리스크 부담이 크게 증가

- 외환시장 변동성지수(CVIX)*가 평균 10%를 웃돌면서 2011년 이후 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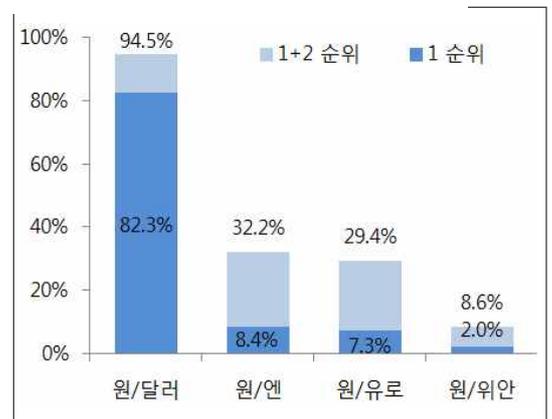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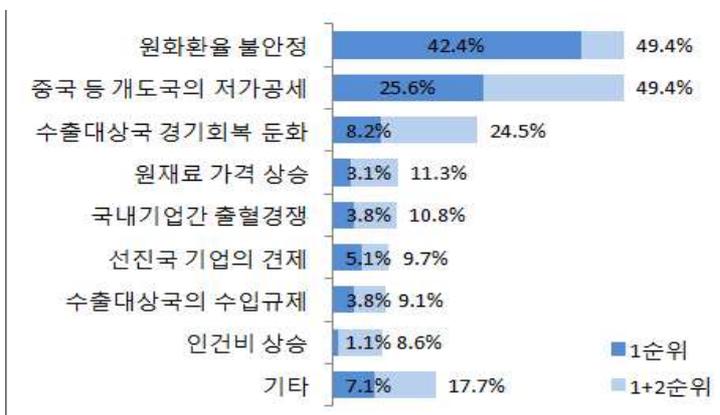
* Currency Volatility index: 도이체방크가 6개 주요 통화의 변동성을 지수화한 것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될수록 CVIX가 떨어짐.

* CVIX(월말): 8.5%('14.11) → 9.5%('14.12) → 11.7%('15.1) → 9.6%('15.2)

○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요인 1순위로도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(25.6%),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(8.2%) 등을 제치고 원화환율 불안정(42.4%)을 가장 많이 응답

□ 수출 활동에 영향이 큰 환율은 원/달러 > 원/엔 > 원/유로

○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영향이 큰 환율은 원/달러(94.5%), 원/엔(32.2%), 원/유로(29.4%), 원/위안(8.6%) 순



- 엔화 결제 비중(3.0%)이 유로화 결제 비중(5.3%)보다 낮고, 일본 수출 비중(5.6%)도 유럽 수출 비중(9%)보다 낮지만, 일본과 수출경합도*가 높아 원/엔 환율 영향이 원/유로 환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.

- * 수출 결제통화 비중 : 달러화 86.3%, 유로화 5.3%, 엔화 3.0%, 위안화 2.2%
- * 수입 결제통화 비중 : 달러화 83.8%, 유로화 5.8%, 엔화 5.0%, 위안화 4.2%
- * 수출경합도 : 양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

- 한일 수출경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 0.5를 넘어섬(양국의 수출품 구성이 50% 이상 유사)

* 한일 수출경합도: 0.446('08) → 0.467('10) → 0.475('11) → 0.481('12) → 0.501('13)

- 원/달러 환율이 전산업에 영향이 큰 가운데,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원/엔 환율의 영향(62.5%)이, 플랜트와 자동차산업 기업들은 원/유로 환율의 영향(50.0%, 44.9%)이 큰 것으로 나타남.

- 문화콘텐츠 산업은 일본 수출 비중이 30.2%로 높아 엔화 영향이 크고, 플랜트 기업 및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이 유럽 업체여서 유로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

2. 원/달러 환율 변동 영향

- 업무계획 기준 원/달러 환율 대비 3~4% 상승해 수출기업 부담 완화

- 기업들의 2015년 업무계획 수립 기준 원/달러 환율은 평균 1,072.8원,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 환율은 평균 1,060.5원으로 집계

- 현재('15년 평균 1,100원) 수준에서 업무계획 대비 2.5%의 가격 경쟁력 발생

- 예상 손익분기 환율은 기계류(1,050.6원), 자동차(1,052.8원) 등이 현재 환율보다 50원가량 낮아 가장 큰 수혜
- 플랜트/해외건설(1,076.9원), 문화콘텐츠(1,071.7원) 등은 상대적으로 손익분기 환율 높아 수혜폭이 크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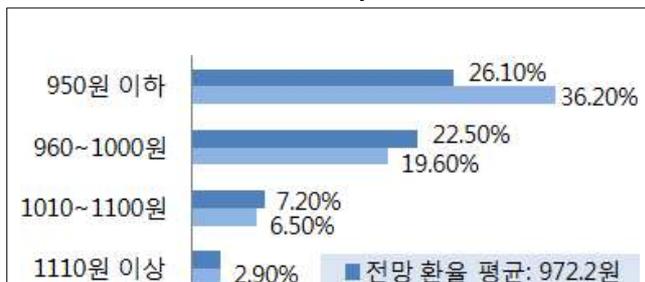
□ 원/달러 환율 10% 상승시, 수출액 3.9%·영업이익 2.8% 증가 예상

- 원/달러 환율이 2014년 연평균 1,053원에서 2015년 1,150원으로 약 10% 상승할 경우 수출액은 평균 3.9% 증가, 영업이익은 평균 2.8% 증가 예상
- 환율 변동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나 단가하락 영향으로 수출액 증가폭은 높지 않으며,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은 이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
-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율은 해운(7.5%), 기계류(5.0%), 자동차부품(4.9%), 선박(4.7%) 등이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, 농산물(1.5%), 철강(2.3%) 등은 평균 이하로 전망
- 영업이익 증가율은 해운(8.8%), 전기전자(4.4%), 자동차부품(3.8%) 등이 평균 이상을, 농산물(0.2%), 석유화학(0.9%), 철강(1.4%) 등은 평균 하회 전망

3. 원/엔 환율 변동 영향

- 업무계획 기준 원/엔 환율 대비 5~6% 하락해 가격경쟁력 약화
 - 기업들의 2015년 업무계획 수립 기준 원/100엔 환율 및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 환율은 모두 평균 972.2원으로 집계
 - 현재('15년 평균 928원) 수준에서는 업무계획 대비 가격경쟁력 4.5% 하락

<수출기업 업무계획 원/100엔 환율 분포>



- 예상 손익분기 환율은 섬유류(1,000원), 자동차 부품(990.3원), 석유화학(983.6원) 등이 현재 환율보다 60~80원 이상 높아 어려움 가중
 - 문화콘텐츠(930원), 철강(943.3원) 등은 손익분기 환율이 낮으나 이미 현재 환율이 분기점 하회

- 원/100엔 환율 10% 하락시, 수출액 4.6%·영업이익 3.7% 감소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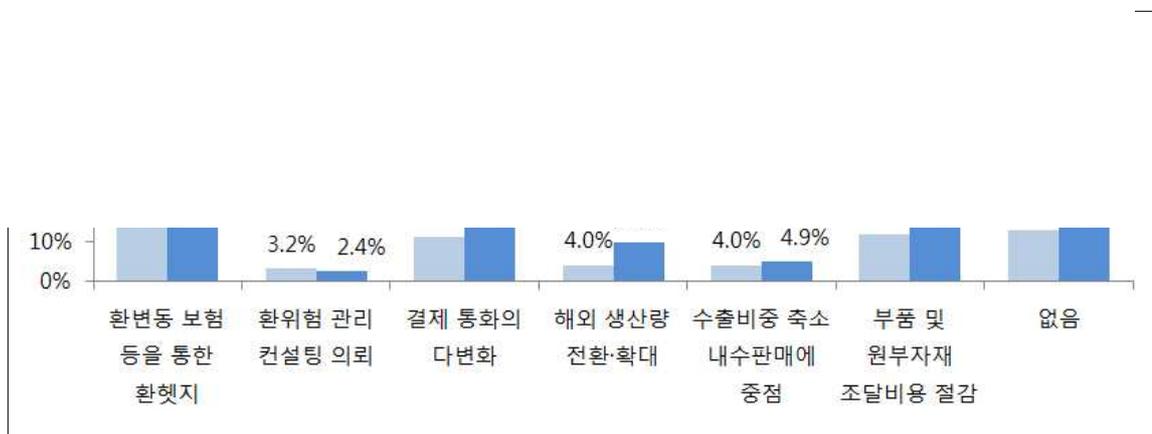
- 원/엔 환율 영향 기업(전체 응답기업 중 32.2%)들의 경우 원/100엔 환율이 2014년 연평균 996원에서 2015년 900원으로 약 10%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평균 4.6% 감소, 영업이익은 평균 3.7% 감소 예상

- 일본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합 분야가 많아 해당 기업에게는 원/엔 환율 하락이 원/달러 환율 상승보다 영향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

* 원/달러 환율 10% ↑: 기업당 수출액 3.9%↑ < 원/엔 환율 10% ↓: 기업당 수출액 4.6%↓

- 다만, 전체 수출기업에서 원/엔 영향 기업(32.2%)의 비중이 원/달러 영향 기업(94.5%)보다 작아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축소
 - 특히 원/엔 환율 영향 기업들도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답해, 우리 경제 전체로는 달러 강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전망
 - * 원/달러 환율 10% 상승, 원/엔 환율 10% 하락 동시 발생시 예상 수출액 변화 (원/엔 영향 기업)
 - : 하락 29.7%, 큰 영향 없음 30.4%, 증가 30.4% → 평균 수출액 -0.1% 하락 전망
- 산업별로는 일본 수출 비율이 높은 문화 콘텐츠(△6.7%)와 일본과 수출 경합이 높은 기계류(△8.7%), 석유화학(△6.3%), 선박(△4.7%) 등의 수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
- 원/엔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(△5.6%)이 대기업(△1.8%)보다 수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
 - 대기업은 환헷지 금융상품(52.4%)을 통해 환리스크에 대응하는 반면, 중소기업은 28.1%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, 아예 대응책이 없거나(21.7%),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 절감(15.6%) 등을 활용해 완화장치 부족

<기업 규모별 환리스크 대응 방안>



4. 시사점

- 미 달러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로 해운, 기계류, 자동차 부품 등 전반적인 수출 품목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, 유럽 등 수출 대상국 경기 회복 부진으로 영향폭은 다소 축소
- 원/엔 영향 기업들의 경우, 일본과 수출경합도도 높고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도 많아, 엔화약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달러강세의 긍정적 효과보다 높을 수 있음.
 - 다만, 원/엔 영향 기업은 전체 수출기업 中 30% 수준이어서 영향 폭이 원/달러 환율변동보다 작고, 달러강세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 부정적 효과도 거의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.
-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달러강세와 엔화약세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,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는 달러 강세에 의한 수출 증가 효과가 더 우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
- 환율 급변동 등 수출 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은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(34.4%),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위한 해외시장·마케팅 정보제공 확대(12.8%) 지원을 선호
 - 다음으로는 환변동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지원(11.5%), 환위험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(14.85), 결제통화 다변화 시스템지원 (9.3%) 등의 순으로 요구

<수출 여건 악화 타개를 위한 당행 및 정부 지원 희망 분야>

정보 제공 확대